

# “가족과 날마다 하늘만큼 환히 웃으세요”

자명 스님, 국립극장서 ‘땡큐부터 콘서트’

퓨전국악으로 세대 아우러  
가족의 소중함 되새기게 해  
전국순회 후 수익금 기부 예정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언제 다시 오 시려나...”

‘엄마’를 부르는 스님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눈을 감은 채 합장한 두 손이 떨렸다. 긴장인지 한(恨)인지 모를 그 떨림에 장삼 소매자락이 바르르 흔들렸다. 그러자 관객석에 앉은 청중의 눈빛도 덩달아 떨렸다. 부모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은 하나의 가락이 되어 같은 공간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1월 30일 저녁, 서울 국립극장 청소년극장에서 열린 ‘땡큐부터 콘서트’는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바쁜 사회생활에 아름다운 가족의 정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수년째 음성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영덕 기원정사 주지)이 기획했다. 가아금·해금·생황·대금 등 국악기와 기타·베이스·드럼 등 밴드 악기가 하나의 곡을 함께 연

주하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500여 청중의 귀를 즐겁게 했다.

이날 자명 스님은 작고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국악가요 ‘꽃분네야’를 부르기 전 애달픈 가정사를 밝혔다. 스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는 암 투병 끝에 작고하고, 3주 후 아버지마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남은 두 형도 자명 스님이 성인인 되기 전 세상을 떠나며 스님은 가족 없이 홀로 살아야만 했다.

자명 스님은 “세상을 홀로 살며 생김 텅 빈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행한 가슴에 힘든 일이 많았다”며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도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이 노래로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명 스님은 ‘꽃분네야’ ‘어디로 가야 하나’ ‘영가전에’ 등 3곡을 부르며 간주마다 합창인사를 올렸다. 90도로 숙인 스님의 허리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고, 청중은 손뼉으로 맞추기를 쳤다.

사회를 맡은 김홍신 소설가는 한 무대가 끝날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릴 만한 얘기를 하며 청중과 소통했다. 자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은 1월 30일 저녁, 서울 국립극장에서 ‘가족愛’를 주제로 한 땡큐부터 콘서트를 개최했다.

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힐링멘토로 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마가 스님은 “가족 속에서 서로 힘들고 싸우는 것은 내가 나를 보기보다는 상대방을 보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내 기준을 강요하기에 앞서 가족으로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콘서트에는 스님 외에도 국립창극단 원 박석희·테너 최용호·뮤지컬 배우 이지영 씨 등이 출연해 ‘가족’을 주제로 한 노래를 선보였다. 몇몇 청중은 잔잔

한 여운이 남는 노래 때문이었는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가족과 손을 잡고 공연장을 나오는 이들은 ‘날마다 하늘만큼 환히 웃으소서’라는 콘서트 소주제처럼 밝게 웃진 않았지만 열은 미소로 서로를 바라봤다.

한편 자명 스님은 3월 6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도 땡큐부터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후 울산·대구·광주·원주·청주 등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공연 수익금 전액을 BBS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 파라미타,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추진한다

100대 과제 선정·20년사 발간 계획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20년사를 발간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1월 29일 서울 국도호텔 3층 톨립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운영기조 및 주요사업 계획을 밝혔다.

파라미타는 올해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에 총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창립 20년사 편찬, 홍보영상 제작 등에 매진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까지 중앙위원·집행위원·사무처장 회의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중장기발전계획 TF팀을 조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1월에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발전계획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청소년 등적품 공모전’을 개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5~7월 공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1월 29일 서울 국도호텔 3층 톨립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 홍보 이후 8월 ‘등 제작 지도자 강습회’를 열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공모에 들어가 11월 작품전시를 연다. 또한 △청소년 봉사활동 △불자청소년 양성(나란다축제) △랩 창작곡 대회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봉사대회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전국연합캠프 △청소년심성개발 활동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임기만료와 사임요청에 따른 이사 선임도 이뤄졌다. 이사 상인 스님(정방사 주지)과 원학 스님(前봉은사 주지)의 후임으로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과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이 신규이사로 선임됐다. **윤호섭 기자**

## 작은 도움이 아이들의 큰 꿈 키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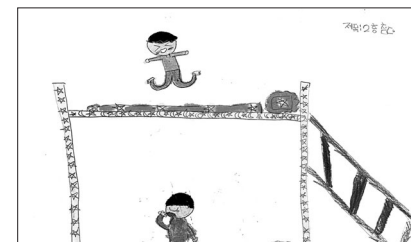
아름다운동행,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위시박스’ 실시

내 작은 도움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착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있을까?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라면 누구나 어린이꿈나무들의 ‘소원지킴이’가 될 수 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캠페인 ‘위시박스’를 진행 중이다. ‘위시박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한 소원’을 들어주는 캠페인이다.

지원내용은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 가족 여행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누릴 수 없던 것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생계지원이 아닌 아이들의 자기 발전과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해에 패션디자이너가 꿈인 주OO(여·15) 학생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재봉틀을 선물했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주OO 양은 어린 시절부터 웃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꿈을 키워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손바느질로 웃을 만



부산 사하구에 사는 박OO(남·10)군은 ‘위시박스’ 캠페인을 통해 평소 갖고 싶었던 2층 침대를 지원받았다.

들어 꿈을 지켜나갔던 주OO 양의 소원대로 재봉틀을 선물했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 자녀들의 착한 소원들이 먼 훗날 더 큰 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소원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시작된 ‘위시박스’ 캠페인은 현재까지 총 26명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약 8,300만 원 가량의 물품 등을 지원했다. 후원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http://dreaminus.org>)서 확인 가능하다. 후원 계좌 053-01-275564 농협 **박아름 기자**

## 군중교구, 5사단 신교대 통일황룡사 낙성

전통사찰 양식·최신시설 갖춰

중부전선 최전방수호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 최신시설을 갖춘 도량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29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축법당 통일황룡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2011년 12월 현 위치로 부대를 옮긴 5사단 신교대는 부대이전 후 별도의 법당이 없어 실내 다목적실에서 법회를 봉행해왔다. 최근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중인 여경 강건욱 군승의 건립 발원과 모연활동으로 통일황룡사 낙성이 이뤄졌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850평에 건축면적 120평이며, 약 28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군예산 10억6000만원이 소요됐으며, 5사단 장병 및 불자 등 법당 자체적으로 6000여만 원을 모연해 불상과 성물, 주련 등을 마련했다. 특히 통일황룡사는 전통사찰 외형에 최신 영상·음향

시설을 갖춰 법회를 비롯해 교육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낙성법회에서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은 “이 법당이 입영한 장병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주는 의지처가 될 것”이라며 “부처님 품안에서 따뜻한 병영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경 5사단장은 “통일황룡사가 장병들에게 심신을 수행하는 도량이 돼 군 정진전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황룡사 지도법사 지효 손영주 군승은 “불사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회에는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3군사령부 군종참모 보명 공영호 군승 등 지역군승, 주창환 前5사단장, 정진경 5사단장, 이석복 예비역 장군불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29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축법당 통일황룡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 한아름회, 케냐 우물사업 1,500만원 지원

1월 13일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 전달

시니어봉사 봉사모임 ‘한아름회’가 지구촌공생회에 케냐 ‘생명의 우물’ 건립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한아름회(회장 이정자)는 1월 13일 서울 아차산 영화사에서 ‘케냐 생명의 우물 건립기금’ 1,500만원을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지구촌공생회 케냐지부를 통해 마을 우물을 건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월주 스님은 “인류가 함께 공존·공영하기 위한 보살행을 실천해줘 감사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이에 이정자 한아름회장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오히려 감사하다”며 “보시는 상을 내지 않고 인연 따라 하는 것이다. 목마른 케냐 아이들이 하루빨리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마시길 바란다”고



한아름회(회장 이정자)는 1월 13일 서울 아차산 영화사에서 ‘케냐 생명의 우물 건립기금’ 1,500만원을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게 전달했다.

달했다.

한편, 한아름회는 60~80대 불자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로, 2000년 창립했다. 2005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점심 대중공양 봉사, 독거어르신 겨울 나기 물품지원 등 자비행을 펼쳐오고 있다. **박아름 기자**

# 서울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불교계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가  
출범시킨 “서울 승가대학” 개강

승가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에 고대인도의 교육방법인  
인본논리학을 기초로 한  
불교교육의 권위를 리워

- ◆ 모집인원 : 20명
- ◆ 대상 :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 학비 : 연 100만원
- ◆ 입학식 :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정오

- ◆ 강사진 : 학회장 스님과 학회소속 지도교수 외 특강강사
- ◆ 교육과정 : 전문과정 : 2년, 연구과정 : 4년, 교수사과정 : 7년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 토요일 오전 3시간)

입학문의 : 010-8969-9444 (지암스님) / 010-7225-8426 (명혜스님)